

중도장애인의 거주 형태에 따른 여가활동 비교 연구 : 지원 아파트와 그룹홈 비교

김 라 경*

특수교육과 강사 및 연구원, 일리노이주립대-어바나 샴페인 캠퍼스

Stacy K, Dymond

특수교육과 교수, 일리노이주립대-어바나 샴페인 캠퍼스

《 요 약 》

본 연구는 중도장애인의 집과 지역사회에서의 여가활동 참여 실태를 살펴보고, 거주환경(그룹홈과 지원 아파트)에 따라 여가활동의 참여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도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 실태 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거주환경에 따라 참여하는 여가활동의 종류의 차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거주 환경에서의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기초 자료 및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미국 26개의 주 8명 이하가 거주하는 성인 장애인 그룹홈과 지원 아파트 중 단순비례층화추출방법을 사용하여, 총 500명의 그룹홈과 시설, 500명의 지원된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거주 서비스 지원 전문가들에게 설문지가 보내졌으며, 그 중 완성된 280개의 설문을 통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도장애인들이 제한된 종류의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특성이 수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에 상관없이 TV시청이 집에서 하는 가장 빈번한 여가활동인 것으로 드러났고, 지역사회에서 하는 여가활동으로는 쇼핑(54.7%)이 가장 빈번한 여가활동으로 나타났다. 그룹홈에 사는 중도장애인이 지원 아파트에서 사는 중도장애인에 비하여, 집에서는 보드게임, 미술/공예 활동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빈번히 하였으며, 외식/커피숍, 공원산책 역시 더 빈번히 하였다. 지원 아파트에 사는 중도장애인은 그룹홈에 사는 중도장애인에 비하여 컴퓨터 사용(이메일/인터넷)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빈번히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주제어 : 지적 장애인, 여가활동, 그룹홈, 지원 아파트

* 제1저자(rkim5@ilinois.edu)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대전 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대형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장애인을 정상화(normalization)의 원리에 입각하여 지역사회 내로 주거생활환경을 이동하고자 하는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지난 40년간 탈시설화 움직임은 장애인들의 대형시설에 대한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고, 그들이 지역사회에 통합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형시설에 대한 보완적 주거모델인 장애인 그룹홈이 도입되었다. 그룹홈은 주로 소규모(주로 6~8명 이하) 그룹의 발달 장애인들과 지적장애인들이 24시간 지원을 제공하는 직원들과 거주하며, 음식준비, 금전관리, 집관리, 여가 오락 활동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받고, 일반 가정과 유사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만든 지역사회 거주 프로그램이다(Beirne-Smith, Patton, & Kim, 2006). 장애인 그룹홈은 시설에 비하여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우선 입소자의 삶의 만족도가 높고(Burchard et al., 1991; Wehmeyer & Bolding, 1999), 더 많은 선택권이 있으며 (Emerson et al., 2000; Robertson et al., 2001; Stancliffe & Lakin, 1998; Wehmeyer & Bolding), 더 빈번한 사회 참여의 기회와, 우정 형성과 사회성 발달(Emerson & McVilly, 2004; Forrester-Jones et al., 2006; Robertson et al., 2001)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장애인 그룹홈은 시설에 비해서는 삶의 질이 높지만 일반인들이 사는 삶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제한되고 감독과 통제가 존재하므로 독립적 삶과 거리가 멀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Braddock, Hemp, Parish, & Rizzolo, 2000; Wehman, West, & Kregel, 1999).

이와 같은 그룹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각광받고 있는 장애인 주거 모델은 지원 아파트이다. 지원 아파트는 1990년대를 접어들며 제시되어온 주거지원(supported living) 패러다임에 기반한 장애인 주거모델중 하나이다. 지원 아파트에서는 일반적으로 한명이나 두 명의 장애인 혹은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며, 매일 일정시간 혹은 주당 몇 시간의 서비스(식료품 사기, 관리비 납부, 이동 수단 제공 등)를 필요에 따라 제공받는다. 이 새로운 주거모델의 장점으로서는, 지적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통합을 증가시키며, 대규모 시설이나 그룹홈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며 (Felce et al., 2008; Stancliffe & Keane, 2000), 무엇보다도 지원 정도와 종류를 장애인 개인에 맞추어 개별화하여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중도장애인도 독립된 주거를 하는 것을 가능하다(Howe, Horner, & Newton, 1998).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하여 학자들은 지원 아파트는 완전 독립

(independent living)이 사실상 어려운 최종도장애인에게 있어서 가장 최상의 독립적 모델임을 지지하였다 (Howe et al., 1998).

그렇다면, 지원 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생활은 그룹홈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생활과 얼마나 다른가? 비록 지원 아파트는 주거지원 모델의 한 일환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주거 지원 모델은 이런 종류의 지원이 어떻게 장애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거하여 지지되기 보다는 그 철학적 패러다임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Harchik & Campbell, 1998). 따라서 주거 지원모델이 실제 장애인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

특히 중도장애인의 여가활동이 두 주거형태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장애인들이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여가활동을 통하여 장애인들은 사회적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다양한 상황 내의 적응행동(adaptive behaviors)을 발전시키고, 습득한 기술을 일반화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또한 여가활동은 장애인들의 정서적, 심리적, 교육적 측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들의 자립생활을 증진시키며 정상화 실현에 기여 한다(Williams & Dattilo, 1997). 그동안 장애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연구는 장애 유형별실태조사 및 여가 만족에 대한 조사가 주를 이루었으며(강미경, 이동진, 유가효, 2010; 박영숙, 유연희, 1997; 추근도, 2005), 주거 형태가 이들의 여가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주거형태에 따른 장애인들의 여가활동의 여부와 종류는 그들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주거형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부터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주거시설에 대한 개혁안을 실시하여 모든 대규모 시설들을 단계적으로 소규모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2008년 유병주가 주거환경지원 패러다임인 중도장애인들의 지역사회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처음으로 자립생활모델을 소개하였다. 여러 가지 새로운 주거형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주거형태가 장애인의 여가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2. 연구 문제 및 의의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중도 지적 장애인의 집과 지역사회에서의 여가활동 참여 실태를 알아보고, 거주환경에 따라 여가활동의 참여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도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 실태 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거주환경에 따라 참여하는 여가활동의 종류의 차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거주 환경에서의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기

초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중도장애인의 여가활동에 대해 설문을 통하여 타인이 바라본 질적인 삶을 살고 있는 중도장애인의 여가활동이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장애인의 집과 지역사회에서의 여가활동 참여는 어떠한가?

둘째, 중도장애인의 거주 환경(그룹홈 및 지원 아파트)에 따라 집과 지역사회에서의 여가활동 참여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참여자의 구성

참여자는 미국전체 51주에서 발달장애 및 지적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거주서비스 전문가(residential specialists)로 그룹홈 담당자, 생활지도사, 지원 아파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스 담당자가 포함되었다. 거주서비스 전문가들의 경우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들의 일상적 삶과 경험에 중요한 결정을 하므로 (Rikknen, Perl, & Kahanp, 2007; Tzeng, 2004; Willer & Intagliata, 1982), 본 설문지는 적어도 중등교육 수준의 문항 이해와 읽고 쓰기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설문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중도장애인들에게 설문을 하는 것 보다 타당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연구 참여자를 거주서비스 전문가로 제한하였다.

설문을 하기에 앞서 51개주 장애인 복지 담당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는 글과 함께 주에서 승인한 8명 이하의 장애인이 살고 있는 그룹홈 거주 전문가들과 지원 아파트에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스 담당자 연락처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었다. 이들 중 응답을 하지 않은 26개주 장애인 복지 담당자에게 같은 이메일을 2주 뒤 다시 전송하였다. 두 번째 이메일에 응답하지 않은 18개주의 경우 전화를 걸어 리스트를 요청하였다. 그 중 46개의 주에서 리스트를 주었고, 정오차(systematic error)를 줄이기 위하여 부분 리스트만 준 20개의 주를 제외하고 26개의 주만을 설문에 포함하였다.

표본을 추출하기 위하여 모든 그룹홈과 대다수의 지원아파트는 단순비례층화추출방법(random 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 procedure)을 사용하였다. 처음 전체의 인구를 거주 형태별로 나누고, 2008년 미국 인구 조사(2008 U. S. Census)의 통계에 따라 표본 추출에 사용된 26개주를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하여 무작위로

산출할 표본 수를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경우 미국 인구수의 18.32%를 차지하므로, 표본 수 역시 전체 표본 수에 18.21% 즉 92개를 추출하였다. 무작위로 추출할 때는 무작위 숫자 생성기(Random Number Generator: <http://www.randomizer.org/form.htm>)를 이용하여, 각 주별로 숫자를 부여받고, 숫자에 해당하는 주거 서비스 기관을 추출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1987년 Aveno가 개발한 지역사회 기술 능력 (the national community skills competencies survey)을 바탕으로, 중도장애인을 위한 기능적 교육과정 및 문헌들을(Brolin & Kokaska, 1997; Ford et al., 1989; Giangreco, Cloniger, & Iverson, 1998; Renzaglia & Aveno, 1987; Wilcox & Bellamy, 1987) 첨가하여 자립 생활 기술 설문(Independent Living Skills Survey)직접 제작하였다. 설문지는 6개의 파트로 구성되어있는데 (a) 장애인 주거에 관련된 정보, (b) 필수 자조생활기술 및 안전기술, (c) 필수 지역사회의 활동, (d) 여가활동, (e) 장애인이 현재 거주지에서 퇴소당하는 이유, (f) 거주서비스 전문가들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총 7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전체 설문조사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개발된 후, 중도 지적장애의 기능적 교육과정(functional curriculum) 및 전환교육 관련된 논문을 적어도 3편 이상 출판한 특수교육과 교수 3명과 재활학과 교수 1명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설문에 앞서 4명의 그룹홈 매니저, 2명의 지원 아파트 매니저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필수 자조 생활 기술 및 안전기술에서의 중복된 문항 2개를 제외하고, 설문지의 형식 및 내용 제시방법 (예; 글자 크기, 번호 매기기 등), 중도장애인의 정의 및 성공적 장애인의 정의에 대한 불명확한 부분을 수정하여 총 7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본 연구는 설문조사의 일부분인 중도장애인의 여가활동만을 발췌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응답자는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도장애인이 가장 빈번히 참여하는 여가활동이 무엇인지를 답하였다. 응답자들은 개방형 문항을 통하여 이들이 가장 빈번히 참여하는 집에서의 여가활동과 지역사회에서의 여가활동을 각각 3개까지 나열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중도장애인과 성공적 삶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도장애인의 정의는 미국 중도장애 학회(The Association for People with Severe Handicaps)의 정의에 따라, “통합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경도 장애인이거나 비장애인들이 누리는 삶의 질을 영유하기 위해서는, 삶의 중요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확장적이며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라

지칭하였다(TASH, p. 19).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사는 중도장애인은, “지역사회에 활동을 즐기며 (thrive),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퇴소당할 위험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성공적으로 사는 것은 반드시 개인이 독립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성공적으로 사는 개인은 관리와 지원을 필요로 할 수 있으며, 보조 장비나 도구를 필요로 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부분 참여만 할 수도 있다” 라 지칭하였다.

보완된 설문지는 26개주의 1,000명의 거주 서비스 전문가(residential specialists)에게 보내졌다. 1,000명 중 500명은 그룹홈에 근무하고 있는 생활 지도사나 매니저였고, 500명은 지원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지적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스 매니저 혹은 담당 책임자였다. 응답자는 설문 내내 본인이 맡고 있는 담당 케이스 중에서 가장 장애가 심하지만, 성공적으로 살고 있다고 여겨지는 지적 장애인 단 한명만을 생각하며 응답하게 하였다. 거주 전문가에서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도장애인이 가장 빈번히 참여하는 여가 활동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다. 응답자들은 이들이 가장 빈번히 참여하는 집에서의 여가활동과 지역사회에서의 여가활동을 각각 3개까지 나열하도록 하였다.

3.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성인 지적장애 장애인에게 거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서비스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미국 26개의 주의 8명 이하가 거주하는 장애인 그룹홈과 지원 아파트 중 단순비례층화추출(a random 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 procedure)방법을 사용하여, 총 500명의 그룹홈과 시설, 500명의 지원된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거주 서비스 지원 전문가들에게 설문 패키지가 보내졌다. 설문 패키지 안에는 (1) 연구목적을 기술하고 연구 참여를 독려하는 편지 (2) 연구 참여 동의서 및 설문지, (3) 우표가 붙여진 편지봉투, (4) 2달러 참여 독려금 (pre-incentive)이 들어 있었다. 설문지 2주 안에 도착하지 않으면, 엽서를 보내 설문의 참여를 상기 시켰다. 엽서를 보낸 2주 뒤에 설문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두 번째 설문지를 보내었다. 총 368명이 응답을 하였고 그 중 88명은 (1) 8명 이하의 그룹홈에서 거주하는 (2) 18세 이상 (3) 성인 중도장애인을 담당하는 자료 제한한 연구 참여자 기준에 맞지 않아 제외시켰다. 연구의 기준에 맞지 않은 88명 중 46명은 지원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서비스 담당자로, 이들의 담당 대상자는 주로 경도 장애인이며 성인 중도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280명의 완성된 설문지를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 처리 및 분석

280 명이 설문지를 완성된 설문지는 SPSS 18 통계 조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데이터 입력의 정확도를 위하여 280 개의 설문지주 무작위로 15%를 추출하여 다른 대학원생에게 입력하도록 하였으며, 100%의 데이터 입력의 정확도를 보였다. 기초통계 분석(평균, 분산, 빈도)을 사용하였으며, 그룹홈과 지원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적 장애인의 여가 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카이검정이 사용되었다.

설문에 참여한 거주 전문가 특성은 <표 1>에 제공되었다. 응답자는 다양한 지역 크기의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대부분이 여성(74.5%)이었으며 백인(70.1%)이었다. 응답자는 과반수가 2년제 이상의 교육을 받았고, 장애 성인과의 근무경험은 평균 15.9년이었으며, 1년에서 45년까지 다양하였다.

<표 1> 거주서비스 전문가 특성

특성	빈도	%
인구수(n=273)		
2,500 미만	14	5.1
2,500 ~ 49,999	91	33.3
50,000 ~ 250,000	88	32.2
250,000 이상	80	29.3
직업(n=276)		
거주 서비스 기관 책임자	75	27.2
그룹홈 담당자	62	22.5
케이스 담당자	60	21.7
생활 지도사	59	21.4
기타	20	7.2
성별(n=275)		
남	70	25.5
여	205	74.5

〈표 1〉 거주서비스 전문가 특성 (계속)

특성	빈도	%
인종(n=274)		
백인 White/Caucasian	192	70.1
흑인	41	15.0
히스패닉계	22	8.0
아시아인	10	3.6
기타	9	3.3
교육정도(n=280)		
고등학교 미만	2	0.7
고등학교 졸업	22	7.9
2년제 이상 대학 졸업	162	57.8
석사	80	28.6
박사(Ph. D., MD, JD)	14	5.0
근무년 수(n=275)		
1년 이상 5년 미만	55	20.0
5년 이상 10년 미만	57	20.7
10년 이상 15년 미만	37	13.5
15년 이상 20년 미만	42	15.3
20년 이상	84	30.5

Ⅲ. 연구 결과

1. 장애인 거주지의 특성

280명의 거주 전문가 중 대부분이 그룹홈(69%)에서 일하였으며, 23%가 지원 아파트, 나머지가 9% 양육가정(foster care)에서 일하였다. 대부분의 장애인 거주지는 24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가장 빈번히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직원이 운전하는 봉고차(76.1%)였다. 근처(1/2마일 안)에 대중교통시설이 있다고 보고한 곳은 50.6%이었고, 2마일 안에 대중교통시설이 있다고 보고한 곳은 33.2%였고,

대중교통시설이 전혀 없다고 보고한 곳도 16.2%나 달하였다. 거주 장애인들은 52.2%가 주간활동센터(day activity center)를 이용하고, 25%가 보호 작업장에 고용이 되었으며, 21.3%는 지원/경쟁고용 상태라 응답하였다.

<표 2> 거주지 특성

거주지 특성	빈도	%
거주지 종류 (n=273)		
그룹홈	189	69.0
지원 아파트	62	23.0
양육가정	9	3.3
그 외	13	4.7
채택 서비스 시간 (n=263)		
주당 20 시간 미만	23	8.5
주당 20 시간 이상 31 시간 미만 (24 시간 서비스 제공하지 않음)	40	17.7
종일 서비스 제공 (24 시간/7 일)	200	73.8
대중교통 시설과의 거리 (n=271)		
1/2 마일 미만	137	50.6
1/2 마일 이상 1 마일 미만	50	18.5
1 마일 이상 2 마일 미만	23	8.5
2 마일 이상	17	6.3
근처에 대중교통이 없음	44	16.2
가장 빈번히 이용하는 교통시설 (n=268)		
직원이 제공하는 회사(그룹홈) 봉고차	204	76.1
버스	29	10.8
직원이 운전하는 차	20	7.5
걷기/자전거	11	4.1
자가운전/오토바이	4	1.5
낮동안에 하는 일 (n=270, 복수응답 가능)		
주간활동 센터	140	52.2
집에 있음	93	34.7
보호작업장	67	25.0
직업이 아닌 지역사회 활동	67	25.0
지원고용/경쟁고용	57	21.3
대학교육	8	3.0

2. 집과 지역사회에서의 여가활동

거주지의 특성과 상관없이 성공적으로 살고 있는 중도장애인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하는 여가활동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중도장애인이 집에서 하는 여가생활의 빈도는 3.9%에서 76.3%였으며, 이중 TV시청이 76.3%로 월등히 높았다. 보드게임, 미술/공예, 음악/라디오 듣기 역시 25% 이상의 빈도를 웃돌았으나, TV시청에 비해 그 격차가 컸다. 중도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하는 여가생활의 빈도는 5.5%에서 54.7%였으며, 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쇼핑이었다. 영화/연극관람, 외식/커피숍, 공원산책도 25%가 넘는 응답자들이 가장 빈번히 하는 여가생활 중 한 개로 응답하였으나, 가장 빈도가 높은 쇼핑과는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표 3> 집과 지역사회에서의 여가활동 빈도 및 퍼센타일 (N=257)

집에서 하는 여가활동			지역사회에서 하는 여가활동		
활동	n	%	활동	n	%
TV 시청	196	76.3	쇼핑	139	54.7
보드게임*	96	37.4	영화/연극관람	115	45.3
미술/공예*	70	27.2	외식/커피숍	112	44.1
음악/라디오 듣기	69	27.1	공원산책	85	33.5
위(Wii)/비디오 게임하기	37	14.6	자전거 타기	58	22.9
컴퓨터 사용하기(인터넷, 이메일)*	35	13.6	볼링	57	22.7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34	13.4	피트니스/춤 수업 참여	53	20.9
운동하기	34	13.4	게임/운동하기	52	20.6
집안일 하기	32	12.6	종교활동(예; 교회활동)	48	19.1
잡지/신문 읽기	29	11.4	가족/친구 방문하기	40	15.9
잔디깎기/화초 재배하기	23	8.9	지역사회 행사 참여	38	15.1
가족/친구들 초청하기	23	8.9	수영	37	14.7
전화하기	22	8.7	콘서트/쇼 관람	35	13.8
피크닉/바베큐 파티	10	3.9	도서관/박물관 방문	29	11.4
			운동경기 관전	26	10.4
			교양수업(예; 문화센터)듣기	15	5.9
			여행가기	14	5.5

3. 거주 형태에 따른 집에서의 여가활동

그룹홈과 지원아파트에서 하는 집에서의 여가활동 하는 여가활동이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그룹홈과 지원 아파트 모두에서 월등히 높은 비율로 TV시청이 가장 빈번히 행하는 집에서의 여가활동으로 나타났다. 거주 전문가들이 지적한 총 14가지 집에서 하는 여가 생활 중 그룹홈에서 사는 중도장애인이 지원 아파트에서 사는 중도 장애에 비하여 4가지의 활동들(컴퓨터 사용하기 (인터넷, 이메일),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집안일 하기, 가족/친구들 초청하기, 전화하기)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모두 높은 참여도를 나타내었다.

그룹홈에 사는 중도장애인이 지원 아파트에서 사는 중도장애인에 비하여, 보드게임($\chi^2(1, N=251)=7.67, p=.01$, 미술/공예 활동($\chi^2(1, N=251)=6.60, p=.01$), 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빈번히 하였으며, 지원 아파트에 사는 중도 지적 장애인인 그룹홈에 사는 지적 장애인에 비하여 이메일 및 인터넷 사용과 같은 컴퓨터 이용을($\chi^2(1, N=251)=7.67, p=.03$)을 더 빈번히 하는 것으로 들어났다.

<표 4> 거주 형태에 따른 집에서 하는 여가활동의 차이

여가활동	그룹홈(N=189)		지원 아파트(N=62)	
	순위	n(%)	순위	n(%)
TV 시청	1	131(76.2)	1	47(75.8)
보드게임*	2	76(44.2)	3	15(24.2)
미술/공예*	3	54(31.4)	5	9(14.5)
음악/라디오 듣기	4	41(23.8)	2	19(30.6)
위(Wii)/비디오 게임하기	5	26(15.1)	5	9(14.5)
컴퓨터 사용하기 (인터넷, 이메일)*	6	19(11.0)	4	14(22.6)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7	22(12.8)	5	9(14.5)
운동하기	8	25(14.5)	10	6(9.7)
집안일 하기	9	19(11.0)	8	8(12.9)
잡지/신문 읽기	10	17(9.9)	11	4(6.5)
잔디깎기/화초 재배하기	11	18(10.5)	12	3(4.8)
가족/친구들 초청하기	12	11(6.4)	8	8(12.9)
전화하기	13	5(2.9)	13	3(4.8)
피크닉/바베큐 파티	14	9(5.2)	14	0(0)

*p<.05

4. 거주 형태에 따른 지역사회에서 하는 여가활동의 차이

그룹홈과 지원아파트에서 하는 지역사회에서 하는 여가활동이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그룹홈에서 사는 중도장애인들이 지원아파트에 사는 중도장애인에 비하여 가족/친지 방문, 수영, 도서관/박물관 방문, 교양수업(예; 문화센터)듣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사회에서 여가활동에서 빈번히 참여하였다. 그룹홈에 사는 중도장애인이 지원 아파트에서 사는 중도장애인에 비하여, 외식/커피 마시기 $\chi^2(1, N=251)=5.68, p<.02$, 공원산책 $\chi^2(1, N=251)=4.30, p<.05$ 활동을 더 빈번히 하였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볼링 $\chi^2(1, N=251)=3.33, p=.07$, 과 도서관 방문 $\chi^2(1, N=251)=3.45, p=.06$ 역시 $p=.05$ 와 근접하였다.

<표 5> 거주 형태에 따른 지역사회에서 하는 여가활동의 차이

활동	그룹홈(N=189)		지원 아파트(N=62)	
	순위	n(%)	순위	n(%)
쇼핑	1	94(55.3)	1	33(53.2)
영화/연극관람	2	84(49.4)	2	24(38.7)
외식/커피숍*	3	79(46.5)	3	18(29.0)
공원산책*	4	63(37.1)	5	14(22.6)
자전거 타기	5	37(21.8)	4	14(23.0)
볼링	6	44(25.9)	9	9(14.5)
피트니스/댄스 수업	7	38(22.4)	7	12(19.4)
게임/운동하기	8	37(22.0)	9	9(14.5)
종교활동	9	34(20.0)	8	10(16.1)
가족/친구 방문	10	21(12.4)	6	13(21.0)
지역사회 행사 참여	11	30(17.6)	12	7(11.3)
수영	12	22(12.9)	9	9(14.5)
콘서트/쇼 관람	13	24(14.1)	12	7(11.3)
도서관/박물관 방문	14	23(13.5)	16	3(4.8)
운동경기 관전	15	17(10.0)	12	7(11.3)
교양수업(예; 문화센터)듣기	16	9(5.3)	15	5(8.1)

*p<.05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미국의 전역에 걸쳐 (1)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중도장애인들의 집과 지역사회에서의 여가활동 참여를 조사하고, (2) 거주환경 (그룹홈과 지원 아파트)에 따라 집과 지역사회에서의 여가활동 참여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중도 지적 장애인들은 제한된 종류의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거주 형태와 상관없이 집에서 하는 여가 생활의 특성이 TV 시청, 보드게임, 미술/만들기, 음악듣기와 같은 수동적 성격의 여가활동에 가장 빈번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TV시청은 76.3%로 다른 집에서 하는 여가활동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미국에서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며 (Buttimer & Tierney, 2005; Hoge & Dattilo, 1995; Zijlstra & Vlaskamp, 2005),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역시 이들의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TV시청이나 비디오 시청으로 보내고 있으며(36.1%), 여행은 단 1.7%, 연극 영화 관람은 0.7% 정도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낮은 문화 및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거주 환경에 상관없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빈번히 하는 여가 활동은 쇼핑이었으며, 영화/콘서트 보기, 외식/커피마시기가 그 뒤를 따랐다. 본 연구에서 가장 빈번히 참여하는 지역사회 여가 활동은 사회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여가활동이 비장애인과는 사회적 상호작용 통합을 증진시키며 사회성 기술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강미경 외, 2010), 쇼핑, 영화보기, 커피마시기/외식하기 등의 활동은 사회적 측면에도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사실상 중도장애인들이 누구와 함께 활동을 하는지, 함께 하는 사람이 비장애인인지, 다른 장애인인지 혹은 직원인지에 대한 관계망이 정확하게 보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참여하는 여가활동이 사회참여적여가라 판단하기에는 다른 보충 연구가 필요하다.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역사회에서 하는 여가활동 중 응답자 중 20% 정도만이 걷기/자전거 타기, 볼링, 피트니스/댄스 수업, 게임/운동하기의 신체를 사용하는 적극적인 여가 활동에 참여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강미경 외(2010), 윤은경(2007), 추근도(2005)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Sands와 Kozleski(1994)역시 성인 장애인은 지역의 단체 활동이나 활동적인 여가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고 보고 하였으며, 이들의 여가 활동 비장애인과는 분리된 고립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개인의 선호도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보고 하였다. 이러한 제한된

사회참여는 학령기부터 시작된다.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전환교육 중단연구(National Longitudinal Transition Study-2, Wagner, Newman, Cameto, & Levine, 2005)에 따르면, 중도 장애아동(예; 지적 장애)은 비장애 아동이나 경도 장애 아동에 비하여 학교에 특별활동 시간에 가장 적게 참여하고 있고, 단 22% 지적 장애아동만이 학교 밖에서 친구를 만나고 있으며, 42%의 아동은 한 번도 친구들한테 전화가 걸려온 적이 없다고 보고 하였다. 중도 장애 아동들은 여가에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여가 기술을 가르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그 기술을 획득하기 어렵다. 또한 성인이 된 중도장애인들은 여가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활동적이며 적극적인 여가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Stebbin, 2000). 이러한 타인에 대한 의존도는 활동적 여가 생활의 기회 자체를 줄인다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자신감을 낮출 수 있고, 이것은 또 다시 적극적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이는 이들에게 여가 기술을 학령기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며, 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여가활동의 정보를 제공함과 적절한 지원을 개인에게 맞추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한다.

학자들은 지원 아파트와 같은 주거환경지원 모델은 전통적인 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그룹홈에 비해 삶의 질이 높고, 삶에 더 많은 다양성을 가지며 지역사회에 통합을 증진시킨다고 주장되어 왔다(Felce et al., 2008; O'Brien, 1994; Scancliff & Keane, 200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시설을 기반으로 했던 주거환경에서 보이던 여가활동의 문제점을 지원 아파트 역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오히려, 그룹홈에 사는 중도장애인이 지원 아파트에서 사는 중도장애인에 비하여, 집에서는 보드게임, 미술/공예 활동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더 빈번히 하였으며, 지역사회에서는 외식/커피숍, 공원산책 역시 더 빈번히 하였다. 이 외에도 전반적으로 많은 활동에서 그룹홈에서 살고 있는 중도장애인들이 더 높은 빈도의 여가 생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물론 그룹홈에서 살고 있는 중도 장애인들은 거주 형태의 특성상 집단적인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본인의 선택이나 선호에 따라 여가활동을 하기 보다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단체로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높은 빈도의 여가활동이 높은 만족도나 질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원 아파트의 경우 절대적 여가활동의 참여의 빈도가 제한적이며 그 활동의 종류가 소극적임은, 단순히 주거 환경이 덜 제한적이며 더 통합적으로 바뀐다고 하여서 장애인의 여가활동의 다양성이나 빈도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지원아파트 응답자 중 46명이 중도 장애인을 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아 분석에 제외시키었다. 이는 지원아파트가 문헌상으로는 장

애의 정도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Howe et al., 1998; O'Brien, 1994; Taylor et al., 1987, 실제적으로 경도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주거지원은(supported living) 개개인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개인의 삶에 맞춘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 연구 결과는 진정한 의미에 주거지원이 현재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유병주가 주거환경지원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시하는 신규 소규모 시설은 5인 이하의 그룹홈 체제와 유사하다는 비판을 제기 하면서, 중도장애인들에게 좀 더 자립적인 거주형태(예; 지원 아파트와 유사한 일인 독립거주형태)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에 앞으로 도입되는 주거환경지원 모델은 미국의 선행 연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자들을 철저히 교육시키며, 비장애인들이 여가활동을 반영하여 그 활동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장애인 개개인에게 역시 적절하며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 없이는 장애인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우며 시간과 자원만을 낭비하는 것이다.

한 장애인들에 대한 다양한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기회의 확대는 장애인들의 여가기능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증진시키고, 정상화 실현에 기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장애인의 삶의 질의 증진을 위하여, 중도 장애인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 필요성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미국 26개주에 거주하는 중도장애인 삶의 실태를 조사하는 연구 중 여가활동 부분을 발췌한 연구이다. 따라서 여가활동만을 연구 목적에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지적 장애인이 어느 정도 시간을 여가활동에 보내고 있는지, 그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지, 여가 생활을 보내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이며 제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하여 여가 생활의 만족도, 여가 활동에 보내는 시간, 여가 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관계망, 여가 활동여가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와 같은 보완된 조사를 통하여 거주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미경, 이동진, 유가효 (2010). 장애인의 여가활동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4), 137-136.
- 박영숙, 유연희 (1997). 지체장애학생의 여가활동에 대한 연구, **재활연구**, 18, 81-101.
- 유병주 (2008). Supported Living,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의 새로운 주요개념, 국립재활원 강의.
- 윤은경 (2007). 성인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지체, 뇌병변 장애인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추근도 (2005). 성인 정신지체 장애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실태분석. **한국스포츠리서치**, 16(93), 491-50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2008 장애인실태조사 보고서.
- Aveno, A. (1987). A survey of activities engaged in and skills most needed by adults in community residence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Severe Handicaps*, 12, 125-130.
- Brolin, D. E. (1978, 1989, 1991, 1997). *Life centered career education: A competency based approach*. Reston, VA: The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 Beirne-Smith, M., Patton, J. R., & Kim, S. (2006). *Mental retardation* (7th ed.). Columbus, OH: Merrill.
- Braddock, D., Hemp, R., Parish, S., & Rizzolo, M. C. (2000). Growth in state commitments for community services: Significance of the medicaid home and community-based services waiver. *Mental Retardation*, 38, 186-189.
- Burchard, S., Hasazi, J., Gordon, L., & Yoe, J. (1991). An examination of lifestyle and adjustment in three community residential alternatives.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12, 127-142.
- Buttimer, J., & Tierney, E. (2005) Patterns of leisure and participation among adolescents with a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9(1), 1-18.
- Emerson, E., & Mcvilly, K. R. (2004). Friendship activities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supported accommodation in northern England.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17, 191-197.
- Emerson, E., Robertson, J., Gregory, N., Hatton, C., Kessissoglou, S., & Hallam, A. (2001). Quality and costs of supported living residences and group homes in the United Kingdom. *American Journal of Mental Retardation*, 106, 401-415.
- Felce, D. (1991). Using behavioural principles in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housing services for adults with severe or profound mental handicap. In: Remington (Ed.), *The challenge of severe mental handicap: A behaviour analytic approach* (pp. 285-316).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 Felce, D., & Emerson, E. (2001). Living with support in a home in the community: Predictors of behavioral development and household and community activity.

-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search Reviews*, 7, 75-83.
- Ford, A., Schnorr, R., Meyer, L. H., Davern, L., Black, J., & Dempsey, E. (Eds.). (1989). *The Syracuse community-referenced curriculum guide for students with moderate and severe disabilities*. Baltimore, MD: Brooks.
- Forrester-Jones, R., Carpenter, J., Coolen-Schrijner, P., Cambridge, P., Tate, A., Beecham, J., Hallam, A., Knapp, M., & Wooff, D. (2006). The social networks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living in the community 12 years after resettlement from long-stay hospitals.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19, 285-295.
- Giangreco, M., Cloninger, C., & Iverson, V. (1998). *Choosing options and accommodations for children (COACH): A guide to planning inclusive education*. Baltimore, MD: Paul H. Brooks.
- Harchik, A. E., & Campbell, A. R. (1998). Supporting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ir homes in the community: the role of organizational behavior management.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Management*, 18, 83-101.
- Hoge, G., & Dattilo, J. (1995). Recreation participation patterns of adults with and without mental retardation. *Training in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30, 283-298.
- Howe, J., Horner, R. H., & Newton, J. S. (1998). Comparison of supported living and traditional residential services in the state of Oregon. *Mental Retardation*, 36, 1-11.
- O'Brien, J. (1994). Down stairs that are never your own: Supporting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ir own homes. *Mental Retardation*, 32, 1-6.
- Renzaliga, A., & Aveno, A. (1986). *Individualized functional curriculum assessment procedure for students with moderate to severe disabilities*,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University of Virginia.
- Robertson, J., Emerson, E., Gregory, N., Hatton, C., Kessissoglou, S., Hallam, A., & Linehan, C. (2001). Social networks of people with mental retardation in residential settings. *Mental Retardation*, 39, 201-214.
- Sands, D. J., & Kozleski, E. (1994). Quality of life differences between adult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Education and Training in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29, 90-101.
- Sheppard-Jones, K., Prout, H. T., & Kleinert, H. (2005). Quality of life dimensions for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comparative study. *Mental Retardation*, 43, 281-291.
- Stancliffe, R. J., & Lakin, K. C. (1998). Analysis of expenditures and outcomes of residential alternative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102, 552-568.
- Stebbins, R. (2000). Serious leisu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A. Sivan & H.

- Ruskin (Eds.), *Leisure education, community development and populations with special needs* (pp. 101–108). New York, NY: CABI.
- Sparrow, W., & Mayne, S. (1990). Recreation patterns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rapeutic Recreation Journal*, 24(3), 45–49.
- The Association for People with Severe Handicaps. (1991). Definition of the people TASH serves. In L. H. Meyer, C. A. Peck, & L. Brown (Eds). *Critical Issues in the Lives of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pp. 19). Baltimore: Paul H. Brookes.
- Taylor, S. J., Biklen, D., & Knoll, J. (1987). *Community integration for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Baltimore: Paul H. Brookes.
- Wagner, M., Newman, L., Cameto, R., & Levine, P. (2005). *Changes over time in the early postschool outcomes of youth with Disabilities. A report of findings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Transition Study (NLTS) and the National Longitudinal Transition Study-2(NLTS2)*. MenloPark, CA: SRI International.
- Wehmeyer, M. L., & Bolding, N. (1999). Self-determination across living and working environments: A matched-samples study of adults with mental retardation. *Mental Retardation*, 37, 353–363.
- Wilcox, B., & Bellamy, G. T. (1987). *A comprehensive guide to the activities catalog: An alternative curriculum for youth and adults with severe disabilities*. Baltimore, MD: Paul H. Brookes.
- Williams, R., & Dattilo, J. (1997). Effects of leisure education on self-determination, social interaction, and positive affect of young adults with mental retardation. *Therapeutic Recreation Journal*, 33(4), 244–258.
- Zijlstra, H. P., & Vlaskamp, C. (2005). Leisure provision for persons with profound intellectual and multiple disabilities: Quality time or killing time?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49, 434–448.

Recreation and leisure activities for individuals with
severe disabilities

: Comparison of supported apartments and group homes

Kim, Rah Kyun

Postdoc Fellow (Researcher and Instructor),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Stacy K, Dymond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Abstract>

Despite the importance of leisure activity, little attention has been directed to determining how adults with severe disabilities residing in group homes and supported apartments spend their leisure time at home and in the commun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eisure activities engaged in most frequently by adults with severe disabilities who live successfully in the community. Participants included residential specialists from across the United States who worked at small community residences (i.e., 8 or less residents) that included adults with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survey was mailed to 1,000 residential specialists using a random 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 procedure; 280 completed survey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Watching TV was the most frequently performed activity at home while shopping was the most frequently performed activity in the community.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who lived in group homes played board games, participated in arts and crafts, ate out/had coffee, and went to the park significantly more frequently than residents living in supported apartments. In contrast,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who lived in supported apartments used the computer/internet/email significantly more frequently than individuals living in group homes.

Key Words

: severe disabilities, leisure, supported apartments, group homes

논문 접수: 2011. 04. 24 심사 시작: 2011. 05. 09 게재 확정: 2011. 06. 15

